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등장인물 의복과 성역할에 관한 연구 -제7차 교육과정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홍 선 옥
한양여자대학 패션디자인과 부교수

A Study on the Role of Sex and on the Clothing of People Appeared in the Elementary School Textbooks

Sun-Ok Hong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Hanyang Women's College
(2004. 8. 2. 접수: 8. 30. 채택)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role of sex and clothing in the seventh version of elementary school textbook-Korean.

Analyzed materials were described contents and illustrations or pictures in textbooks – Korean of the wholeclasses with content analysis.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results. First, the proportion of males to females is 55.6%. Second, the proportion of female's skirts to trousers is 80.6%. Third, the proportion of female's long hair style to short hair style is 61.9%. Fourth, mother and female-teacher clothes mainly show skirts. Fifth the results compare father's working with mather's in home : fathers mainly spend the time with family and mothers mainly cook and play roles of housewife.

As it was shown above, the ratio of sex in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has a tendency to be unfair. Clothing and apperearances of female don't also reflect the present actual tendency. Contents of textbooks are apt to emphasize on the traditional feminine attitudes.

Key Words: sex role(성역할), traditional sex roles(전통적 성역할), clothing(의복), feminine(여성다운), hair style(머리모양), textbook(교과서)

I. 서 론

사람들은 의복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다른

Corresponding author ; Sun-Ok Hong
Tel. +82-16-288-4329, Fax. +82-2-2290-2159
E-mail : oakhong1@naver.com

사람을 지각하고 평가한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에 맞는 행동과 외모를 갖추게 되며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의복을 입으려 한다¹⁾. 따라서 개개인의 의복은 지각자로 하여금 그 사람의 역할과 지위를 판단하도록 하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며²⁾ 또한 인간을 남성 여성의 구분으로 알 수 있는 행동 단서이기도 한다.

※ 본 연구는 2003년도 한양여자대학 교내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어느 사회에서나 남녀에 따라 상이한 역할을 부여하고, 기대하는데 이는 성인에게는 물론 아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아동은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성역할을 습득하도록 기대되고 성에 적합한 자아개념과 성격특성을 획득하도록 유도된다³⁾.

이처럼 의복은 성역할의 사회화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전통적 성역할 또는 변화하는 성역할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다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중의 하나가 성역할의 변화이다.

성역할 발달은 사회화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성정체감이 자아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을 알고 그것에 적당한 역할을 배우는 것이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성정체감의 확립에 중요한 시기인 학령기에는 생활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져서 사회적 환경이 훨씬 넓어진다. 학령기 아동은 부모와 가족구성원의 영향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 친구, 책, TV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아동은 이시기에는 주로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받기 때문에, 여러 측면의 발달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서 개인성이 더욱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교육을 받는 아동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교과서는 아동들이 행동습득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매개체로 꼽을 수 있다. 교과서는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도구로써 수록되는 내용은 주요사설, 개념, 원리, 법칙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전달하기 위해 주요내용과 관련된 작품, 언어적 서술, 삽화등이 제시된다⁶⁾.

본인은 학령기 아동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아동들의 성역할 발달에 모델링이 된다고 판단하여 지난 제5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의 내용 및 삽화를 대상으로 아동의 성역할 사회화가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⁷⁾.

교육과정이 몇차례 개편된 오늘날 남녀의 성차는 감소되고 있는데 반해 아동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아동의 성역할 발달 파악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는 아동들에

게 성역할 사회화가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가 등장 인물의 의복을 통해 조사하고자 하며, 제5차 교육과정 국어교과서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어교과서와 비교하여 성역할의 변화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 1) 남아·여아 성 비율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한다.
- 2) 여아의 의복스타일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한다.
- 3) 여아의 머리모양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한다.
- 4) 어머니·여자 선생님 등 여자어른의 의복스타일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한다.
- 5) 가정내 활동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한다.
- 6) 제5차 교육과정 국어교과서에서의 성역할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등장인물의 의복에 성역할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Ⅱ. 문헌적 배경

1. 아동의 성역할

성역할의 차이가 특징적으로 생기는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수 있다. 첫째는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남녀의 행동차이에서 나타나고, 둘째는 성역할 사회화과정 즉 발달과정에 의한 남녀차이다⁸⁾.

性에 따른 역할 분화는 사회적 행동의 가장 보편적인 결정 요소이다. 모든 사회에서 차이는 있을지라도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른 의무와 기대를 부여한다. 그러한 의미부여는 보통 심리적인 특성을 기초하여 설명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재현들은 거의 전적으로 문학에 의해 결정된다⁹⁾.

문화속에서 남성과 여성은 각각의 역할에 적합한 사고, 태도 행동양식을 가질 것이 기대되며, 가정이나 학교교육을 통해 이러한 기대는 전수되고 이러한 사회적 기대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성역할의 사회화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아동은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성역할을 습득하도록

록 기대되고 性에 적합한 자아개념과 성격특성을 획득하도록 유도된다¹⁰⁾.

아동의 性은 생물학적으로 정해지지만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아동이 성숙해져감에 따라 학습한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사회공급자(부모, 형제들)를 통하여 성별에 적절한 역할을 인식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녀의 실제적 性差를 가져오는 것은 성역할 사회화과정에서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데, 아동들이 학습하는 성역할의 내용은 남녀에 적합한 신체적 속성, 외현적 행동, 놀이태도, 감정 그리고 욕구 등 다양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행동과 태도는 보상, 벌, 모방, 모델링의 학습과정에 의해 발달된다. 아동이 남성적, 여성적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강화를 받느냐에 따라 성역할을 사회화하게 된다고 한다.

6세부터 12세경 까지는 아동의 생활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져서 사회적 환경이 훨씬 넓어진다. 아동은 부모와 가족 구성원의 영향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 친구, 책 그리고 TV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¹¹⁾. 특히 아동에게 읽어주거나 보여주는 그림동화책은 아동의 성역할 사회화에 크게 기여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어린이가 책을 보는 동안에 이야기에 담겨진 내용이 상징하는 바를 음미하거나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고 밝혔다¹²⁾.

따라서 아동은 이시기에는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받기 때문에 여러측면의 발달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서 개인성이 더욱 발달하게 된다. 이는 책의 내용과 그림이 무의식적으로 아동에게 직접 작용하는 것이고 동화의 인물표현, 상황이 아동에게 너무나 어필하기 때문이다.

Key는 아동들의 책에 나타난 남녀 역할을, Frasher와 Walter는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성역할은 남자중심 혹은 남존여비 등으로 기울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남녀간에 性差를 크게 두어 남녀역할을 고정관념으로 대해 왔음을 밝혔다¹³⁾.

Vukelich, McCarty, Nanis의 연구에서도 그림동화책에서 남자주인공이 여자주인공 보다 3배나 더 많이 다루어져 있고, 그림의 수에서도 남자그림의 수가 훨씬 많이 나타나고 남녀역할도 고정된 성역할 관념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밝혔다¹⁴⁾.

이와 같이 다수의 그림책들이 한 문화의 규범과

가치관을 강화시키는데 소용되는 것으로 보아 아동들은 성역할 사회화과정에서 그림동화책을 통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역할 발달은 어느 한가지 이론만으로 설명하기가 불충분하다. 또한 성역할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적 상황과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원시시대 이래 성역할은 남녀의 근본적인 신체적 차이로 인하여 생겼으며 육체적으로 힘이 우세한 남성은 사냥, 목축을 하는 반면, 여성은 자녀출산, 양육 및 가사를 돌보던 역할의 차이가 사회, 문화구조를 통하여 확대되어 왔다¹⁵⁾.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성역할의 개념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변화된 도덕관, 가족계획, 기계화, 여성운동등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진출, 산업구조의 변화는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전통적 성역할 개념을 변화하기 시작하여 兩性간에 다른 것으로 구분되었던 성역할 고정관념이 매우 임의적이며 한계가 있는 개념이라 보게 되었다¹⁶⁾.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남성적, 여성적 특징을 모두 소유할 수 있다는 양성성 개념을 Bem(1976)은 성역할의 새로운 개념으로 제안하였다¹⁷⁾.

2. 의복과 성역할

의복은 1차적으로 성별구분의 뚜렷한 표현 중 하나로서 착용하며, 그러한 방법으로의 의복사용은 거의 세계적인 전통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의복이 확실히 구별되며, 이 성의 의복착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Brown(1963)은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의 남성의 의복을 입기는 하지만, 여성의 의복을 입은 남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한다고 하였다¹⁸⁾.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의복은 성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성별에 따른 전통의복에는 행동과 연관된 의미를 갖는다. 즉 중세 이후 바지는 남성, 스커트는 여성의 입었는데 스커트는 여성의 역할을 상징하여 의존적이며 비공격적 이었으며 반대로 남자의 바지는 남자다움, 힘, 독립적, 공격적이라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Ellis는 문화적 기대는 남성은 강하고 활력있고, 기운세고, 거칠고, 털이 많고, 반면에 여성은 섬세

하고, 순종적, 부드럽고, 둥글고, 얌전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여성의복에 이용되는 직물의 부드러움과 남성의복에 이용되는 직물의 거칠고 딱딱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드래프한 의복이 여성적이고, 테일러드한 의복은 남성적이라는 언급보다는 앞선 표현이다¹⁹⁾.

Roberts는 19세기에 미국의복은 각 성별의 역할을 규정 짓는다고 지적하였다. 남성복의 어두운 색상, 엉성한 양식, 활동의 자유로움, 분명한 실루엣으로 구성함으로써 남성적인 경향을 반영한다고 하였고, 여성복은 밝은 파스텔조의 색상, 리본, 레이스 등을 실루엣으로 구성된 여성적인 경향을 반영한다고 발표하였다²⁰⁾.

Roach는 서구사회에서 남성,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은 과거 비산업사회의 생활패턴에 기초를 두고 정의되었다. 여성은 아이를 기르고, 집을 관리하고, 가사일을 돌보는 등 상당히 신체적인 힘을 요구하는 보조활동 등에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각 성의 의복은 이러한 역할을 만족시켜야 하며, 역할수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예로써, 바지는 남자들의 신체노동에 방해되지 않게 보호적어야 하며, 여자의 스커트는 너무 bulky하거나 길어서 다소 위험하고 불편하겠으나, 여자들이 집안을 돌보고 아이 기르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또한 실제로 여성에게 꽃무늬, 프릴 달린 여성스러운 의복은 전통적인 여성역할과의 동일시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밝혔다²¹⁾.

의복에서의 성별 구분은 사회화하는 매개체에 의해 아동들의 사회화에서 유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복은 남성, 여성적 경향의 양자를 표현하므로 아동들이 gender견지에서 정확하게 동일시하는 사회화의 매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푸른색 옷을 입은 아동은 소년으로 인지하고, 분홍색은 여자아이로 인지된다. 의복에 이러한 구분의 결과는 타인들이 소년다운, 소녀다운 것과 관련된 태도에 기초를 둔 아동에 대한 반응이 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푸른색 옷을 입은 아동들은 ‘거칠고 활동적이거나 강하다’ 와 관련시키며, 핑크색의 옷을 입은 아동은 ‘부드럽고, 수동적이며 섬세하다’ 고 생각한다.

Stone은 유아기 어린이 의복의 性 정체성 형성에서 심지어 탄생에서부터 남아는 푸른색 담요, 여아

는 핑크색 담요로 감싸며 성역할 사회화의 부여가 시작된다고 지적하였다²²⁾.

이와 같이 전통적 성역할에 관련된 의복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남녀의 전통적인 성역할은 과거 비산업사회의 생활패턴에 기초를 두고 한정되어 나타나는 의복상징들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성역할과 의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이 해방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된 시기에는 여자의복이 남자의복의 특징에서 많은 자유를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예가 여성의 바지착용이다²³⁾.

여성의 남성의복 선택이유로는 불공평하고 제한된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반항, 스포츠 및 직업을 위한 추구, 제1차 세계대전 이래 남성과 유사해진 여성의 직업적 역할 때문이며 남성이 여성의복을 선택한 이유는 20C에 와서 남성은 단조롭고 제한된 전통적인 남성의복에 대한 싫증을 느껴 여성유행을 모방한 색상이었고, 편안한 의복을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Laver는 여자들이 남편을 부양자로서 보다는 남자로서 선택할 수 있을 때 마다 양성의 옷은 매우 비슷해진다고 언급하였고,²⁴⁾ 또한 Rudi Gernreich는 유니섹스 의복이 장래를 위한 의복스타일이라고 믿었고, 몸에 착붙는 원피스, 타이트팬츠, 슈우트를 남녀를 위해서 똑같이 디자인하여 의복에서의 性 차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²⁵⁾.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가치와 현상을 승격시켜 주었고, 바지착용을 더욱 보편화시켰다. 이는 성별에 기초를 두지 않은 개인의 차이를 강조하고 발전시킨 결과로서 의복에서의 性 차이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근래에 이르러서 성역할의 차이감소로 의복에서의 남녀차이가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의복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사실은 남성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의복이 성역할에 있어서 어떻게 그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전학년이 사용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제작한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전학년이 1학기에 걸쳐 사용하는 1학년 읽기, 말하기 · 듣기(2권), 2학년 읽기, 말하기 · 듣기(2권), 3학년 읽기, 말하기 · 듣기(2권), 4학년 읽기, 말하기 · 듣기 · 쓰기(2권), 5학년 읽기, 말하기 · 듣기 · 쓰기(2권), 6학년 읽기, 말하기 · 듣기 · 쓰기(2권) 총 12권을 선정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2. 분석요인

분석요인으로는 등장인물의 성별비중, 여아의 복스타일, 여아헤어스타일, 어머니 · 여자선생님 등 여자어른의 의복스타일, 가정내 활동에서 아버지 · 어머니의 역할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비율, 빈도수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의복스타일이란 의복의 특징이 구별되는 형태로서 스커트, 바지의 분류로, 헤어스타일이란 긴머리, 짧은머리의 분류를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및 자료수집

분석방법은 각 학년별(1학년~6학년), 각 항목별(읽기, 말하기 · 듣기 · 쓰기)교과서의 서술적 내용

및 삽화 · 사진을 통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단위별로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1.남녀 성별 비중 2.스커트 혹은 바지의 착용빈도 3.긴머리와 짧은머리 표현빈도 4.어머니와 여자선생님의 의복스타일에서 스커트 혹은 바지의 착용빈도 5.가정내 활동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기 역할 비교 등을 백분율로 산출하여 비교하였고, 이를 검정하기 위해 F검정, Z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내용을 그래프로 비교하였다.

IV. 연구결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과 의복에 관한 분석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녀 성비율 분석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남녀별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남녀 성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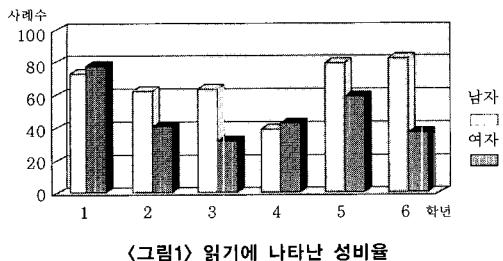
<표1>, <그림1>, <그림2>, <그림3>에 의하면, 국어 교과서의 남녀 성비율은 56%와 44%로 남자아이의 비중이 높다. 이를 1998년의 교과서와 비교하면 1998년 국어 교과서의 남자아이 비중은 61%였으나, 2004년에는 56%로 줄어들어 남성 편향의 교육과정 구성은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국어 교과서의 남녀 성비율이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귀무가설(H₀ :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성비율에 차이가 있다)과 대립가설(H₁ :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성비율에 차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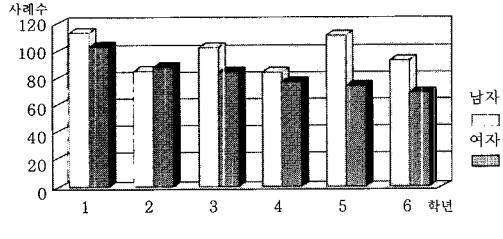
〈표1〉 등장인물의 성비율의 학년별 비교

학년	읽기		말하기 · 듣기 · 쓰기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학년	73 (48.3)	78 (51.7)	113 (52.3)	103 (47.7)	186 (50.7)	181 (49.3)
2학년	62 (60.2)	41 (39.8)	85 (49.1)	88 (50.9)	147 (53.3)	129 (46.7)
3학년	63 (66.3)	32 (33.7)	102 (54.5)	85 (45.5)	165 (58.5)	117 (41.5)
4학년	39 (48.1)	42 (51.9)	84 (51.9)	78 (48.1)	123 (50.6)	120 (49.4)
5학년	79 (57.2)	59 (42.8)	111 (59.7)	75 (40.3)	190 (58.6)	134 (41.4)
6학년	82 (68.9)	37 (31.1)	94 (57.3)	70 (42.7)	176 (62.2)	107 (37.8)
계	398 (57.9)	289 (42.1)	589 (54.1)	499 (45.9)	987 (55.2)	788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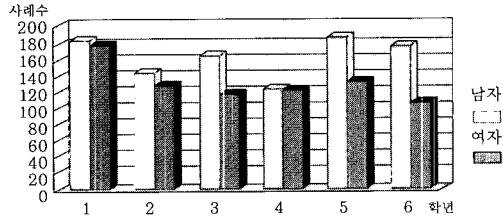
(단위 : 빈도수, %)



〈그림1〉 읽기에 나타난 성비율



〈그림2〉 말하기·듣기·쓰기에 나타난 성비율



〈그림3〉 국어 전체 교과서에 나타난 성비율(합계)

없다)을 세우고 F 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녀 성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F=1.42) 그렇지만 이런 결과가 국어 교과서의 남녀 성비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국어 교과서에서 나타난 남녀 성비율이 실제로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남녀 성비율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귀무가설(H₀ : 초

등학교 학생의 남녀 성비율과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남녀 성비율이 동일하다)과 대립가설(H₁ : 초등학교 학생의 남녀 성비율과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남녀 성비율이 동일하지 않다)을 세우고 Z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귀무가설이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Z=1.51)

한편 학년별 남녀 성비율은 1학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남자 비중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특히 6학년 교과서에서는 남자아이 비중이 62.2%로 여자아이 등장인물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성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성역할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고학년 시절에 남성편향의 교육과정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남성편향의 교육과정 구성이 이전에 비하여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지만, 고학년 교과서에서는 성차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2. 여아의 의복스타일 비교

국어 교과서에서 나타난 등장인물에 표현된 여자의 의복스타일을 스커트와 바지착용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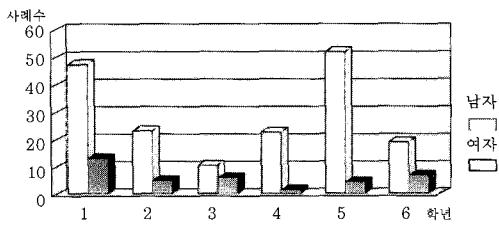
<표2>, <그림4>, <그림5>, <그림6>에 의하면, 여자아이의 의복스타일에서 스커트 착용이 전학년의 교과서에서 암도적으로 많음(80.6%)을 볼 수 있다. 이는 1998년의 국어 교과서에서 여자아이의 스커트 착용 비중(78%)과 비교할 때 거의 변화가 없다.

여자아이의 의복스타일이 차이가 있는지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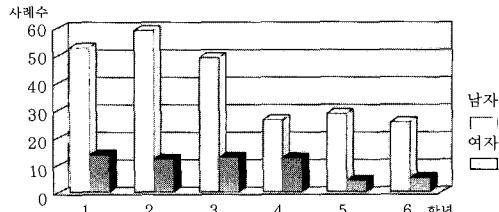
〈표2〉 여자의 의복스타일 비교

학년	읽기		말하기·듣기·쓰기		계	
	스커트	바지	스커트	바지	스커트	바지
1학년	47 (78.3)	13 (21.7)	51 (78.5)	14 (21.5)	98 (78.4)	27 (21.6)
2학년	23 (82.1)	5 (17.9)	57 (82.6)	12 (17.4)	80 (82.5)	17 (17.5)
3학년	10 (62.5)	6 (37.5)	48 (78.7)	13 (21.3)	58 (75.3)	19 (24.7)
4학년	22 (95.7)	1 (4.3)	26 (66.7)	13 (33.3)	48 (77.4)	14 (22.6)
5학년	52 (92.9)	4 (7.1)	28 (87.5)	4 (12.5)	80 (90.9)	8 (9.1)
6학년	18 (72.0)	7 (28.0)	25 (80.6)	6 (19.4)	43 (79.8)	13 (23.2)
계	172 (82.7)	36 (17.3)	235 (79.1)	62 (20.9)	407 (80.6)	98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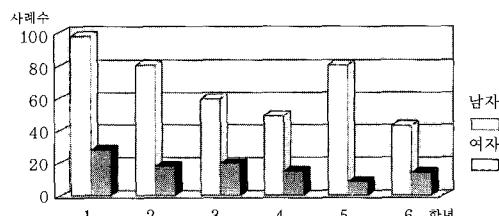
(단위 : 빈도수, %)



〈그림4〉 읽기기에 나타난 여자의 의복스타일 비교



〈그림5〉 말하기·듣기·쓰기에서 나타난 여자의 의복스타일 비교



〈그림6〉 국어 전체 교과서에 나타난 여자의 의복스타일 비교(합계)

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귀무가설(Ho: 스커트착용 비중과 바지착용 비중은 차이가 있다)과 대립가설(Hi: 스커트착용비중과 바지착용 비중은 차이가 없다)을 세우고 F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여자아이의 의복스타일에 차이가 있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F=0.22)

이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표준화되고

단순화된 성역할을 규정하는 고정관념이 교육과정에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국어 교과서에는 전통적인 남향성, 여향성의 이원적인 성역할이 염밀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3. 여아의 머리모양 비교

교과서에 나타난 등장인물에서 표현된 여자의 머리모양을 긴머리와 짧은 머리 등으로 분류하였다. 분류기준으로는 길이가 긴머리, 하나로 묶은 머리, 양갈래 묶은 머리, 땋은 머리, 쪽진머리, 올린 머리 등은 긴머리로 분류하였고, 길이가 짧은 머리, 단발머리, 컷머리 등은 짧은 머리로 분류하였다.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 <그림7>, <그림8>, <그림9>에 의하면 여자의 머리모양은 1학년에서는 긴머리와 짧은머리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2학년 이후부터 긴머리 비율이 훨씬 많이 나타났다. 1998년의 국어 교과서와 비교할 때 긴머리의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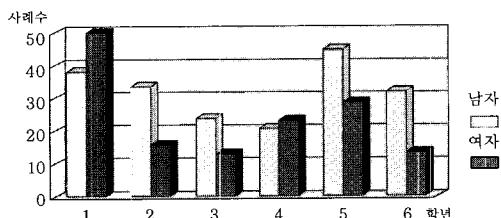
여자아이의 머리모양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귀무가설(Ho: 긴머리 비중과 짧은 머리 비중은 차이가 있다)과 대립가설(Hi: 긴머리 비중과 짧은 머리 비중은 차이가 없다)을 세우고 F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여자아이의 머리모양은 차이가 있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F=0.79)

이는 여아 및 여성 표현에 여성스러움이 강조되고 있는 긴머리는 전통적 성역할을 표현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긴머리는 더욱 여성스러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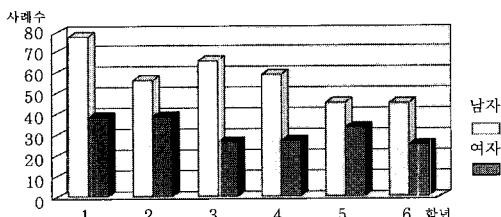
〈표3〉 여아 및 여성의 머리모양 비교

학년	읽기		말하기·듣기·쓰기		계	
	긴머리	짧은머리	긴머리	짧은머리	긴머리	짧은머리
1학년	37 (43.0)	49 (57.0)	77 (66.4)	39 (33.6)	114 (56.4)	88 (43.6)
2학년	32 (69.6)	14 (30.4)	57 (58.8)	40 (41.2)	89 (62.2)	54 (37.8)
3학년	22 (66.7)	11 (33.3)	66 (71.0)	27 (29.0)	88 (69.8)	38 (30.2)
4학년	19 (47.5)	21 (52.5)	59 (67.0)	29 (33.0)	78 (60.9)	50 (39.1)
5학년	44 (62.0)	27 (38.0)	45 (57.0)	34 (43.0)	89 (59.3)	61 (40.7)
6학년	30 (73.2)	11 (26.8)	46 (63.9)	26 (36.1)	79 (67.3)	37 (32.7)
계	184 (58.0)	133 (42.0)	350 (64.2)	195 (35.8)	534 (61.9)	328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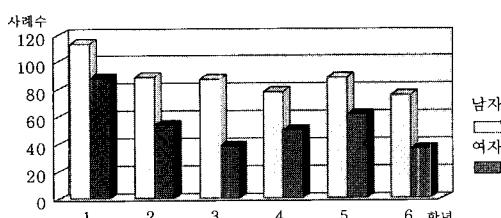
(단위 : 빈도수, %)



〈그림7〉 읽기에 나타난 여자의 머리 모양 비교



〈그림8〉 말하기·듣기·쓰기에 나타난 여자의 머리 모양 비교



〈그림9〉 국어 전체 교과서에 나타난 여자의 머리 모양 비교(합계)

강조하는 것으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4. 어머니·여선생님의 의복스타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조사된 어머니, 여자 선

〈표4〉 어머니·여선생님의 의복 스타일

학년	읽기		말하기·듣기·쓰기		계	
	스커트	바지	스커트	바지	스커트	바지
1학년	12 (92.3)	1 (7.7)	9 (100)	-	21 (95.5)	1 (4.5)
2학년	11 (100)	-	4 (100)	-	15 (100)	-
3학년	6 (100)	-	2 (100)	-	8 (100)	-
4학년	11 (100)	-	-	-	11 (100)	-
5학년	14 (100)	-	1 (100)	-	15 (100)	-
6학년	5 (83.3)	1 (16.7)	4 (100)	-	9 (90.0)	1 (10.0)
계	59 (96.7)	2 (3.3)	20 (100)	-	79 (97.5)	2 (2.5)

(단위 : 빈도수, %)

생님들의 의복스타일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로 삼화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표4>와 같다.

<표4>에 의하면 어머니의 집밖이나 집안 활동에서 스커트 착용(96.7%)이 바지 착용(3.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여자 선생님의 경우에는 모두 스커트 착용(100%)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성역할에서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역할에서의 융통성에 따라 가능적이고 활동적인 의복이 필요해지고 갈수록 남녀동일한 유니섹스 의복을 착용하는 요즈음의 주부 및 여자 선생님의 의복에 현실 반영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5.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분석

국어 교과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에서 등장하는 인물가운데 아버지, 어머니가 수행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내용이며, 그 역할의 빈도수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결과는 <표5>와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역할분석

아버지가 수행하는 일들을 나열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과 함께 집안에서 지내기·대화하는 모습(11회), 가족과 함께 소풍·여행하는 모습(6회), 책·신문 보는 모습(4회), 상차림·설겆이 등 집안 일하는 모습(3회), 아기 돌보는 모습(2회) 외에 아내들로부터 옷시중 받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꽃밭에 물주는 모습, 자전거 수리·마당 쓸고 있는 모습, 자녀에게 용돈 주는 모습(각1회) 등이 아버지가 수행하는 일의 종류이다.

〈표5〉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비교

	아버지	어머니
1위	가족과 함께 집안에서 지내기 · 대화(11회)	가족과 함께 집안에서 지내기 · 대화(22회)
2위	가족과 함께 소풍 · 여행(6회)	음식만들기 · 상차림 · 설것이등 집안일(13회)
3위	책 · 신문보는 모습(4회)	자녀 및 아기 돌보는 모습(10회)
4위	상차림 · 설것이 등 집안일 돋는 모습(3회)	가족과 함께 소풍 · 여행(7회)
5위	아기 돌보는 모습(2회)	마중 · 배웅하는 모습(5회)

2) 어머니의 역할분석

어머니가 수행하는 일들을 나열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과 함께 집안에서 지내기 · 대화하는 모습(22회), 음식만들기 · 상차림 · 설것이 등 집안일 하는 모습(13회), 자녀 및 아기 돌봄(10회), 가족과 함께 소풍 · 여행하는 모습(7회), 자녀 및 가족 마중 · 배웅하는 모습(5회), 남편 및 가족 시중드는 모습(2회), 꽃밭에서 물주고 있는 모습(2회), 바느질하는 모습(2회) 외에 혼자 휴식하는 모습, 자녀에게 심부름시키는 모습, 꽂다발 받고 행복해 하는 모습, 행상 하는 모습, 구슬 끼는 모습, 그물 정리하는 모습, 떡 썰고 있는 모습(각1회) 등이 어머니가 수행하는 일의 종류이다.

3)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비교

아버지가 수행하는 일의 종류는 11종이고, 어머니가 수행하는 일의 종류는 15종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 어머니 역할은 그 빈도수에 따라 1위에서 5위까지를 각각 나타내어 보면 〈표5〉와 같다.

〈표5〉에 의하면 아버지의 역할로 가장 많이 나타내는 순위를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지내기, 책 · 신문보는 모습, 집안일 돋는 모습, 아기 돌보는 모습 순으로 나타냈다. 이를 1998년의 교과서와 비교하면 1998년 국어 교과서에서의 아버지 역할에서는 집안일이나 아기 돌보는 모습 등은 5위 순위안에 들지 않았으며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능동적이며 주도적, 지배적인 역할수행을 주로 볼 수 있었던 반면에 현재 교과서에서는 가정적이며, 집안일에 아내와 협력하여 함께하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어머니의 역할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순위를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지내기, 음식만들기 · 상차림 · 설것이 등 집안일하는 모습, 자녀 및 아기 돌보기, 마중 · 배웅하는 모습 순으로 나타냈다.

이는 주부로써의 이미지가 훨씬 강조되었던 1998년의 교과서와 그 이미지가 비슷하게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어머니의 행동표현에 있어서 구슬꿰는 모습, 바느질하는 모습, 떡썰고 있는 모습 표현 등은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여전히 나타냈다. 그러나 1998년 교과서와 비교한다면 꽃밭에서 물주고 있는 모습이나 휴식하는 모습, 행상, 집밖에서 일하는 모습(1회) 등의 표현은 수동적, 의존적인 어머니의 태도에서 적극적, 능동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미미한 정도로 나타낸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에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나 점점 늘어가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진출, 가사노동감소, 남녀평등사상 등 현사회 문화구조를 서서히 반영하고 있음이 표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들의 성역할 발달에 모델링이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 가운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등장인물의 의복과 성역할이 어떻게 반영되어, 아동들에게 성역할 사회화가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위하여 1) 교과서의 서술내용 및 삽화, 사진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남녀 성비율을 조사하고 2) 여아의 의복 스타일을 분석하고 3) 여아의 머리모양을 비교해 보며 4) 어머니 · 여선생님의 의복스타일을 파악해보고 5) 가정내 활동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지난 제5차 교육과정 국어교과서와 현재 사용되는 국어교과서와 비교하여 성역할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및 연구방법은 교육부에서 제작한 제7차 교육과정 국어교과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읽기, 말하기·듣기·쓰기 1학기분 총 12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이를 검정하기 위해 F검정과 Z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남녀 성비율은 56%와 44%로 남자아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남녀 성비율은 1학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남아 비중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특히 6학년 교과서에서는 남자아이 비중이 62.2%로 여자아이 등장인물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5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와 비교하면, 제5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의 남자아이 비중은 61% 이였으나,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에는 56%로 줄어들어 남성편향의 교육과정 구성은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둘째, 여아의 의복스타일을 살펴보면, 전학년의 국어 교과서에서 스커트 착용이 80.6%로써 바지착용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5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서 여자아이의 스커트 착용 비중이 78%였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어머니 머리모양을 살펴보면, 1학년 교과서에서는 긴머리와 짧은머리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2학년 교과서 이후부터는 긴머리 비율이 훨씬 많이 나타났다.

또한 제5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긴머리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어머니·여선생님의 의복스타일을 조사해 보면, 집밖이나 집안 활동을 하는 어머니의 스커트 착용은 96.7%로 바지착용 3.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여선생님의 경우에서는 스커트착용이 100%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아버지·어머니의 역할을 분석해 보면,

아버지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가정적이며 아내와 협력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활동은 여전히 주부로써의 이미지가 훨씬 강조되었으나, 행상이나 집밖에서 일하는 모습등에서 미약하게 적극적, 능동적인 역할 수행을 볼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들에게 학습되는 국어 교과서 등장인물에 나타난 의복스타일, 헤어스타일에 따른 성역할은 전통적인 남향성, 여향성의 이원적인 성역할을 전반적으로 나타냈다.

특히 여아의 여성스러움이 강조되는 스커트착용과 긴머리 표현과 어머니·여선생님의 의복스타일 등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여실히 표현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남녀 성비의 조정과 남녀의 차별적 역할구분에서는 지난 5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비하여 남성편향의 교육과정 구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학령기 아동들의 주된 학습교재인 교과서는 남녀의 구태의연한 의복착용, 헤어스타일 등이 시정되어 21세기 주인공이 되는 아동들에게 올바른 성역할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 내용구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국어 교과서 1학기 내용만을 다루었으므로 다른 교과 내지 초등학교 전체 교과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다른 교과서의 내용분석 외에 향후 실제적인 아동의 성역할 태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
- 2) Ibid., p.186.
- 3) 윤 진 (1981). 남녀차이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한국사회학회지* 5, pp.21-35.
- 4) Kaiser, S. B., 김순심 외 역 (1990). *복식사회심리학*. 경춘사, p.127.

- 5) 김경희 (1992). *아동심리학*. 박영사, p.233.
- 6) 한국교육개발원 (1979). *교과서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p.52.
- 7) 홍선옥 (1998).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과 복식에 관한 연구. *한양여자대학 논문집 21*, pp.529-548.
- 8) 강혜원 (1996).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181.
- 9) Ralph, L. (1936). *The Study of Man*. New York: Appleton-Century, p.116.
- 10) 윤진 (1981). Op.cit., pp.21-35.
- 11) 김경희 (1992). Op.cit., p.233.
- 12) 권성웅 (1979). *교과서와 아동의 성역할 사회화 연구노트*.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p.1.
- 13) Ibid., p.2.
- 14) Vukelich, C., McCarty, C. & Nanis, C. (1981). *Sex Bias in Children's Picture Books*. Children Education, pp.220-222.
- 15) 강혜원 (1998). Op.cit., p.181.
- 16) Freedman, J. L., Sears, D. O. & Carlsmith, J. M. Social Psychology 흥대식 역 (1986). *중보 사회심리학*. 서울: 박영사, pp.531-532.
- 17) Bem, S. L. & Watwon, M. W. (1979). Sex Typing and Androgyny : Further Explorations of the Expressive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pp.1016-1023.
- 18) Horn, M. J. & Gurel, L. M. (1981). Op.cit., p.212.
- 19) Ellis H. (1936).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Sex. *Randem House 4*. recited in Workman, J. E. and Johnson, Kim K. P. An Integrated Theory for Gender Differentiation in Dres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University of North Texas, p.1.
- 20) Workman, J. E. and Johnson, Kim K. P. Op.cit., p.1.
- 21) Workman, J. E. and Johnson, Kim K. P. Op.cit., p.2.
- 22) Workman, J. E. and Johnson, Kim K. P. Op.cit., p.2.
- 23) 강혜원 (1998). Op.cit., p.91.
- 24) Horn, M. J. & Gurel, L. M. (1981). Op.cit., p.137.
- 25) 강혜원 (1998). Op.cit., pp.193-194.